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책을 닦은 사람들

*은평구립도서관 주부독서클럽 385-1671(내선 236) <http://booklike.cyworld.com>

은평구립도서관 주부독서클럽 회보

제5호 (2008. 12.)



은평구립도서관

발간사

2 008년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우리 도서관의 주부독서클럽도 7년이
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
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독서 문화를 뿌리내
린다는 취지로 2002년 처음 시작한 주부
독서클럽은 회원들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의 독서 문화 습관 형성에 적
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회원들이 함
께 책을 선정하고 읽고 토론하는 가운데
책의 의미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고 책을 가까이 하는 어머니의 모
습에서 아이들도 책과 평생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에 이렇게 회원들의 글을 모아 회보를
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해가 갈수록 더 많
은 회원들이 도서관의 울타리 안에서 좋은 책을 매개로 소중한 만
남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 속에 출발하였던 2008년이 좋은 결실을 맺도
록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참신한 도서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200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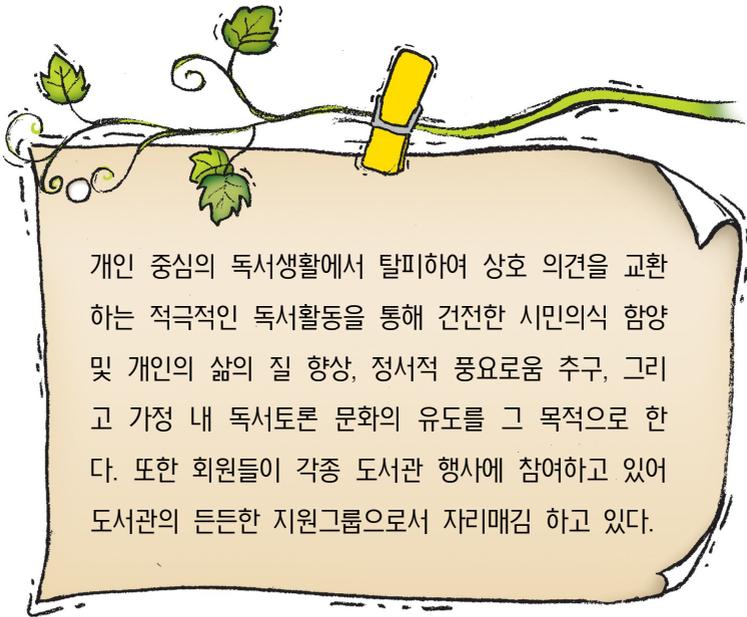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목 차

- ⇒ 발 간 사 | 1
- ⇒ 모 임 소 개 | 5
- ⇒ 2008년 선정도서 | 6
- ⇒ 회원 글 모음 | 12

책사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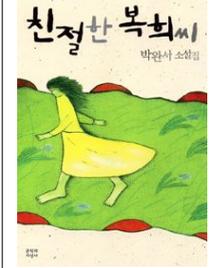
- ▷ 회원구성 : 독서에 관심있는 주부
- ▷ 모 집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문의 : ☎ 385-1671 내선 236)
- ▷ 정기모임 : 매월 2주, 4주 금요일 10시~12시
- ▷ 장 소 : 은평구립도서관 시청각실
- ▷ 주요활동 : 독서 토론, 영화감상, 특별강연, 문학기행(연 1회),
도서관 행사참여, 회보 발간, 독서감상문 기고 등
- ▷ 홈페이지 : <http://booklike.cy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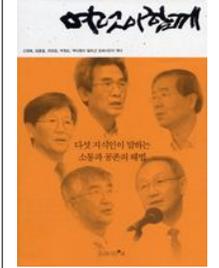
2008년 선정도서

1월 선정도서

『친절한 복희씨』 박완서 지음
『여럿이 함께』 신영복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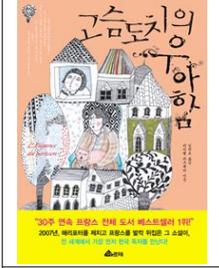
표제작인 “친절한 복희씨” 를 비롯해 9편의 단편들은 대부분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노인들의 신산한 삶을 그린다. 그러나 그들의 보잘것없는 삶을, 작가는 ”그림다는 느낌은 축복이다. 나를 위로해준 것들이 독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한다.



『여럿이 함께』는 우리 시대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인다. <프레시안>이 창간 5주년을 맞아 기획한 연속 강연과 토론을 한데 엮은 것으로 신영복, 김종철, 최장집, 박원순, 백낙청 등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언론, 통일 등 각 분야에 걸쳐 소통과 공존을 이야기한 결과물이 담겨 있다.

2월 선정도서

『고슴도치의 우아함』 무리엘 바르베리 지음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이수광 지음



부자 아파트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가난한 수위 아줌마인 르네, 그리고 이 아파트 6층에 사는 부유한 국회의원의 막내딸 팔로마. 『고슴도치의 우아함』은 가난한 수위아줌마 르네와 자살을 결심한 열두 살 천재소녀 팔로마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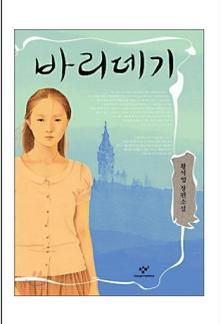


엄격한 유교사상과 신분제도가 개인을 철저히 억압한 조선시대에도 화려한 ‘연애사건’은 그칠 줄을 몰랐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뒤흔든 최대의 연애사건과 스캔들을,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한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16가지 연애사건은 오늘날 관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조선시대의 성 모랄을 낱알이 드러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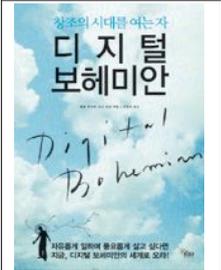


3월 선정도서

『바리데기』 황석영 지음
『디지털 보헤미안』 홀름 프리베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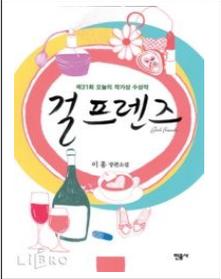
중국대륙과 대양을 건너 런던에 정착한 탈북소녀 ‘바리’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면 한반도와 전 세계에 닥쳐 있는 절망과 폭력, 전쟁과 테러를 경험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 속에 ‘바리데기’ 신화를 차용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21세기 현실을 박진감 있게 녹여냈다. 이 작품은 전쟁과 국경, 인종과 종교, 이승과 저승,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신자유주의 그늘을 해부하는 동시에, 분열되고 상처받은 인간과 영혼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대서사를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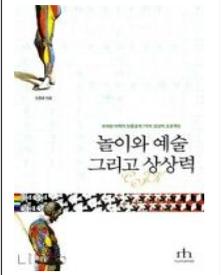
21세기를 지배할 새로운 종족인 ‘디지털 보헤미안’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직이나 회사에서 부여한 일을 거부하며,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집과 회사를 오가며 같은 일을 하고, 언젠가는 퇴물이 되어 연금에 기댄 노후를 보내야 하는 삶은 그들에게 비극이나 마찬가지다.

4월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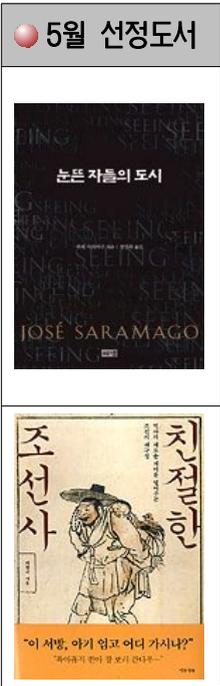
『걸프렌즈』 이홍 지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지음



”걸프렌즈”는 제목 자체가 이중적이다. 한 남자의 여자 친구(애인)들인 동시에, 그녀들 서로가 서로의 여자 친구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07년 제31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걸프렌즈”는 자칫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놀라운 설득력과 충만한 소설적 재미로 단번에 독자를 매료하며, 21세기의 새로운 연애 모형을 거침없이 풀어 나간다.



유쾌한 미학자 진중권은 상상력이 미학의 영역임을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에서 선언하고, ‘놀이’라는 코드로 새로운 미학의 세계를 파고 들어간다. 저자는 상상력 혁명으로 도래한 사유의 특징을 비선형성·순환성·파편성·중의성·동감각·상형문자·단자론이라는 일곱 개의 키워드로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라마구 지음
『친절한 조선사』 최형국 지음

불특정 시간, 익명의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의 우매함과 잔인함을 풍자하고 있는 이 소설은, 주제 사라마구의 <인간의 조건 3부작>을 잇태한 『눈먼 자들의 도시』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알레고리와 패러독스의 걸작이다. 『눈먼 자들의 도시』가 “만약에 이 세상 모두가 눈이 멀어 단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한 경고였다면, 『눈쁜 자들의 도시』는 “세상 눈쁜 자들이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소설로 쓴 혁명 그 자체다.

역사 속 작은 사람들, 곧 ”풀뿌리”인 민중들의 소소한 역사를 들여다보는 책. 승자의 논리로만 채워져가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속 승자와 위인들의 소심함이나 인간적인 고뇌, 희노애락을 포착하여 사람들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따스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단순한 생활사에서 벗어나 조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과 조선의 진정한 가치,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봐리 부인』 귀스타브 플로베르 지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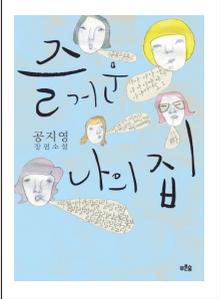
아내가 있는 의학생 샤를르 보봐리는 의사시험에 합격해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아내가 죽자 돈많은 농장주의 딸 엠마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엠마는 단조로운 일상과 멋없는 남편에게 흥미를 잃고 멋지고 화려한 생활을 동경하는데....

영화감상
“지금 만나러 갑니다”



7월 선정도서

『즐거운 나의 집』 공지영 지음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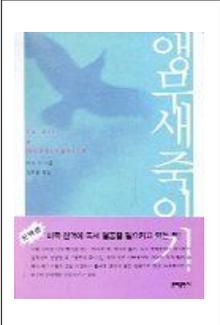
읽는 내내 ‘우리 집도 이런데……’ 하고 중얼거리며 미소 짓게 하는 이 소설은, 불완전해 보이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지독한 몸살을 앓으며 사춘기를 넘어야 했던 위녕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십대의 마지막을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되찾아가면서 삶의 주제로 당당하게 성장하는 위녕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의 치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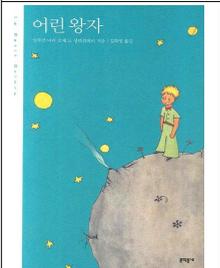
행복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그들은 남보다 자신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당당하고, 스스로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롭다.

8월 선정도서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지음
『어린왕자』 생텍쥐베리 지음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든 어른들의 편견을 향한 아이들의 외침을 그린 이 소설은 1960년 출간 이후 미국 전역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으며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후 전세계에 40여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성장소설적 구조 속에 명백히 억울한 누명임에도 흑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미국 남부 사회 어른들의 편견어린 사고 방식에 대한 비판과 타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을 통해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프랑스 작가 생 뵅쥐베리의 소설. 소호성 B612호에 사는 어린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엮은 책이다. 맨 마지막으로 어린왕자는 지구에 오게 되는데, 자신의 별에 두고 온 장미를 그리워하는 어린왕자에게 여우가 친구가 되어준다. 슬기로운 여우는 어린왕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 이라고 가르쳐준다.



9월 선정도서

『열하일기』 박지원 지음
『아리랑 - 조선인 혁명가』 님 웨일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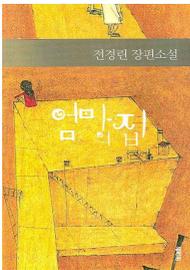
<열하일기>에는 당시 조선에서 오랑캐로 여겨지던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암의 파격적인 사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연암은 청나라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과학, 예술, 정치, 철학, 경제, 지리, 풍속, 제도 등 당시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하게 담아내기 위해 속담, 민요, 소설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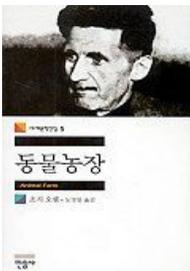
평양 출생의 김산은 도쿄에서 고학을 하던 중 일제의 압박과 만행에 충격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안창호, 김약산과 함께 의열단에 가입한다. 중국의 광주혁명에도 가담하는 등 조선과 중국에서 혁명가로 활동하던 그는 1938년 “일제의 특무” 스파이로 몰려 처형되었다. 이 책은 혁명가 김산의 사상과 행적을 소설처럼 아름다운 문장으로 속도감있게 그려냈다.

10월 선정도서

『엄마의 집』 전경린 지음
『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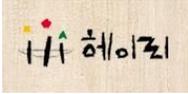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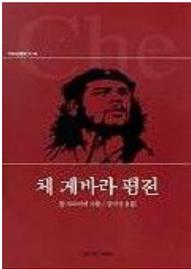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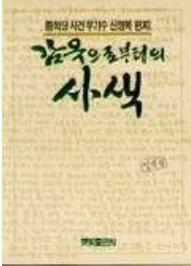


작가는 한 여자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생애 속에서 전적으로 통제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종속당하지 않는 미스 앤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딸이 담담한 긍정의 시선으로 엄마라는 동성을 마주보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엄마와 딸이 “집”을 포함해 소소한 기쁨과 상처, 사랑, 그리고 불굴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간에게 착취 당하던 동물들이 인간을 내쫓고 동물농장을 세운다는 큰 줄거리 아래 독재자와 사회주의 사회의 문제를 실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한 장면소설. 우화로서의 <동물농장>은 소비에트 체제라는, 한 시대의 권력 형식만을 재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정치 풍자를 넘어 ‘독재 일반’에 대한 우의적 정치 풍자를 담고 있다.



<p>● 11월 선정도서</p>	<p>『문학기행』 헤이리 예술마을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지음</p>
	<p>헤이리 예술마을 문학기행</p>
	<p>아르헨티나의 의학도였던 체 게바라는 남미여행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 판단하고 쿠바, 콩고, 볼리비아 등지의 혁명에 투신한다. 파란의 삶을 살다간 게바라의 생애와 사상을 사진과 함께 엮었다.</p>
<p>● 12월 선정도서</p>	<p>『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지음 『총회』 09년 계획 수립</p>
	<p>1988년 첫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이 시대의 고전으로 기록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증보판. 저자의 출소 이후 발견된 메모노트와 기존 책에 누락된 편지글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었다.</p>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2. 15. 이신애

— 황금빛 가을 시간 ‘헤이리 문학 마을’을 가다 —

떠 나고 싶다!! 단지 그 마음 뿐이었다. 좋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독서클럽 회원들과 서대성 사서님이 소박한 우리의 가을 모임을 함께했다. 고즈넉한 가을 들panse 모던한 건물들이 충분한 여백을 갖고 자기만의 느낌으로 서 있었다.

북카페에는 너무도 많은 책들이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일률적이지 않게 아무 곳이나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과거와 현재의, 문학과 비문학의 책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찬연한 단풍잎처럼 눈이 부셨다.

‘서양 영화 속 성 안의 서재처럼 이곳이 내 서재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겠다. 이 책들을 밤새 읽으면서 말라 비틀어진 바케트로 한끼를 때워도 행복하겠다.’ 나는 끊임없는 책과의 동거를 상상하면서 흐뭇했다.

그것은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로인 듯 했다.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회원들의 얼굴이 어찌나 예뻐 보이는지! 지금 공자가 살아와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목구비의 아름다움은 책을 대하는 미소만 못 하고, 그 미소는 책에 뺏긴 마음만 못 하다. 고로 나는 이세상의 여인 중에 책에 마음을 뺏긴 여인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 하겠다.’

북카페 밖에는 가을이 무르익어 발길에 채인다. 낙엽이 주는 조락의 의미보다는



발길에 닿는 가을은 따스하다. 아이처럼 조형물 속을 뛰어다녀 보고 싶기도 하고, 벌렁덩 큰 대자로 낙엽 밟을 퐁퐁고도 싶다. 규격화된 일상을 벗어나는 그 사소함이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워매이지 않는 시간에 대한 안도감! 자유로움! 그 마음으로 더욱 돈독해지는 회원들간의 흐르는 정!!

짧은 시간으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근처 한정식집에서 소소한 수다를 떨며 접시마다 맛있게 비워냈다. 아줌마들의 수다들이란 졸졸 시냇물 같다가고 한번 웃음보가 터지면 접시가 깨지는 터라 다소 시끄러웠을 한정식 집에 미안하기는 했으나 갑자기 우리 모임을 이끌게 된 서대성 사서님의 사생활도 살짝쿵 엿보게 되었고, 서로간의 생활과 생각, 마음의 흐름도 나누게 되어 음식만이 아닌 배부른 식사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 주는 아쉬운 여유! 그래서 더욱 흐뭇한 우리만의 여행! 돌이켜 보아도 행복한 시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었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1. 29. 김명희

— ‘소년의 눈물’(서경식 지음)을 읽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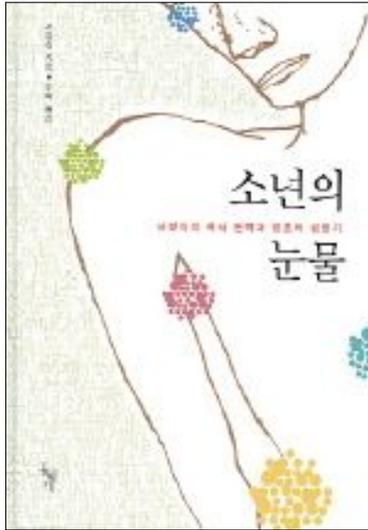
구 파발, 진관내, 외동이 철거되고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3년전 늦가을 부랴부랴 이삿짐을 싣다. 도서관 근처에 집을 구하고 싶은 욕심을 접고 몇군데 더 발품을 팔아 지금 살고 있는 선일학교 옆 산아래에 간신히 동지를 틀었다. 처음 2년동안은 막내가 다섯살이고 또 내가 멀리 걷는게 힘들어서 매일 동네 놀이터에서 오후를 보냈다. 작년11월 어느날 동네 아줌마가 딸이 한자공부하는 동사무소에 가방을 가져다 주러 간다가에 막내손을 잡고 무작정 따라나섰다가 큰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어쩌다 찾아 오는 행운이란 바로 이렇게 아닐까? 독서클럽을 만나 다시 책을 알게 되었다면 이번 행운은 아늑하고 따듯한 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맘껏 볼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뭏튼 ‘소년의 눈물’ 은 이렇게 나와 인연이 되었다. ‘소년의 눈물’ 은 1995년에 일본 에세이스트클럽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작품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난 서경식 교수의 영혼의 성장기이며 자전적 에세이다. 책벌레였던 둘째형의 영향을 받아 책을 유난히 좋아했던 저자의 어린시절 독서 이야기가 교토시내 서민동네를 배경으로 재미있게 엮어져 있다. 어릴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저자의 어머니는 가난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아들들이 책을 좋아하는 것을 딱 자랑스러워 하셨고 코흘리개 어린아들이 종알종알 책의 내용을 재잘거리기라도 하면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신 것 같다. 저자



가 아파서 학교를 빼먹은 다음날 도 학교에 가기 싫을때 이불을 꼭 뒤집어 쓴채 버티면 채근하시다가 결국 당신의 일이 바빠지게 되면 체념하셨다고 한다. 가끔은 빗자루로 호되게 매를 맞은 적도 있지만 거꾸로 떡이 베갯머리에 놓여 있기도 했다고 한다. 죄의식은 있어서 빗자루보다는 베갯머리의 떡이 더 가슴을 저며 왔지만 이렇게 힘겨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신명이나서 서둘러 보고 싶은 책을 쌓아두고 아무 간섭도 받지않고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큰 즐거움이었다고 회상한다. 오늘 기말고사를 보는 5학년 큰애가 도서관에서 내가 빌려온 책을 어젯밤 11시까지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당장 급한일을 해야지 안하면 후회한다고 말하다가 저자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떠올라 잔소리를 중단하고 말았다. 저자는 어릴적 읽은 책의 제목과 내용을 그 기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많이 알고 있다. 읽은 책의 분량이 적지않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며칠전 내가 작년에 2개월동안 읽은 도서목록을 방정리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어떤 제목은 처음보는듯 아직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저자가 중학교 영어 시간에 “i am a japanese” 라는 문장을 배울때 말을 안하다가 선생님의 독촉을 서너차례 받고 “하지만 저는 일본인이 아니라.....” 그때 ‘조선인’ 이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저자는 말한다. 선생은 ‘korean’ 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 대신 수업시간에 쓸데없는 것일랑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나 하라며 불쾌해했다고 한다. 출신과 문화를 홀로 등에 짊어진 채 다른 모든 학생들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하니 조속하고 영리한 소년이 예민하게 느꼈을 차별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같은 동포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이름이 처음에 낯설지 않아 호기심을 가지고 책장을 넘기다가 둘째, 셋째형이 한국유학생할 중 1971년에 정치범으로 구속되어 19년, 17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살아 출옥한 서승, 서준식씨라는 것을 알고 이책을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만으로 감상하기에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픈 가족사가 너무 절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 옥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두형을 도울 수 없는 현실의 괴로움을 저자는 중국작가 루쉰의 작품을 읽으며 위로받고 인내한 것 같다. 괴로움과 고난의 오랜세월을 곳곳하게 견뎌낸 저자의 가족에게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것은 사소한 일상조차 힘들다며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은 아닌지 나부터 먼저 반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된다. 혹시 책장과 서랍속에 살아남아 있을지 모를 어린 시절 일기장을 한번 찾아보고 지난날의 나도 꿈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보는것도 좋지않을까?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1. 20. 김은경

—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만으로’ (전경린 지음)을 읽고 —

전 경린의 ‘엄마의 집’은 읽는 내내 가슴을 따스하게 했다. 작가는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과는 달리, 다른 여자와 승지를 택한 아빠에 대한 원망, 딸 호은을 등지고 떠난 엄마에 대한 비난을 철저히 배제했다. 딸 호은의 담담하고 긍정적인 시선이 전체적인 글 분위기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편안했다. 흠어진 가족에 대한 과거 집착형 적개심이 표출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행복한 단어로 서로 상처를 공유해 가는 장면 장면이 애처롭기까지 했다. 흠어져 있지만 홀로서기하기까지의 발판이 ‘가족을 믿고 이해하는 사랑’이었다. 이 위대한 끈이 그들을 묶어 놓을 수 있었고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했다. 나는 딸 호은과 미스엔 엄마와의 사침에 시선이 머물렀다.

며칠 전 각양각색의 국화를 보았다. 그 가운데 양증맞은 노란 국화가 군락을 이룬 모양이 참 마음에 들었다. 작고 예쁜 국화를 보는 순간 두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에게 딸, 딸에게 엄마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충족되지 않는 값진 인연의 선물이다.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에서 딸 위녕은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았고 엄마처럼 스스로 행복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성장하는 자신을 이해해 주고 시선을 나란히 해 준 엄마가 튼튼하고 멋져 보였다. 엄마는 성이 다른 아이들을 홀로 꾸려갈 때 타인의 따가운 시선이 마음 아팠고 우울하고 가슴이 뻥한 공허



가 짓밟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단단히 땅에 딛고 서 있어야 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의 시선으로 상처받고, 저속한 내용의 뒷담화로 좌절했을 때도 딸 위녕이 엄마를 이해했기에 언제나 미안하고 고맙다. 전경린의 ‘엄마의 집’의 딸 호은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엄마였다. 아빠에게 딸 호은, 의붓동생에게 언니 호은, 미스엔 엄마에게 호은은 소통의 대상이었다. 특히, 미스엔 엄마와 함께 살게 된 엄마의 집에서 소소한 기쁨, 상처 등 다양한 감정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는 장면들을 대할 때는 작가의 말처럼 모녀관계를 넘어 또 다른 인간과의 동등한 사귀이었다. 여자의 일생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며 가야 할 친구, 남편, 시댁, 사회 생활.. 함께 대상을 탐색하고 속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 여자가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자신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일이다. 인간적인 공허와 경제적 강박이 외풍처럼 넘나든다 해도, 나의 집을 가지고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은 초월적일 만큼 즐거운 일이다.”

가장이라는 울타리가 소멸되고 모든 문제를 통제해야 할 사람이 엄마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앓이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딸이 된다면, 값진 인연의 선물이라는 이유로 감내하기엔 벗겨내야 할 포장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에게 딸이 있고, 딸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란히 두 손을 꼭 잡고 화사한 들국화 포장지를 사러 갈 수 있을 것이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1. 11. 전향란

—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지음) —

어린 시절에는 화장실(변소)에 앉아서 벽 주변에 있는 얼룩덜룩한 무늬에서 유령같이 괴상한 얼굴들을 발견하곤 했었다. 그 괴상한 얼굴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고 나를 겁주기도 하며 혼자 좁은 공간에 앉아있어야 하는 나를 두렵게도 하고 즐겁게도 해 주었다. 그러나 요즘은 생택쥐 페리의 <어린왕자>에서 보아 뱀의 그림을 대하는 어른들처럼 나에게 얼룩은 그냥 얼룩 일뿐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나를 겁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점점 상투적인 질서에 익숙해지며 상상하는 재미와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

그런 나에게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은 잊고 지낸 놀이와 그에 따르는 무한한 상상력을 되찾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 작품은 평소에는 접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고 각 파트마다 3개씩의 이야기가 있다.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네. 와~ 나도 예전에 이런 놀이 해본 적 있는데...’ 하며 반감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다. 저자는 그림자놀이, 주사위, 인형, 물구나무, 마술, 미로, 종이접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놀이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언급하며 놀이와 예술이 경계선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지하고 합리적이지 못했던 시대에는 넘쳐나는 상상력의 분방함을 억제하고 이성적 사유를 강조해야 했겠



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 상상력을 뒷받침 해줄만한 기술과 지식이 넘쳐 난다. 저자는 이미 아는 것만으로는 힘이 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억압하고 배제했던 상상력의 힘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에게 진중권은 미학전문가 이전에 까칠한 독설가였는데 이 책 속에서 그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안내에 따라 나는 다양한 작품들을 거꾸로도 보고 눈을 찡그리고도 보며 신기해하고 감탄했다.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놀이-재미-상상력-창조력-예술’ 간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느끼며 어렸을 때 누구나 하는 하찮은 장난으로 생각했던 놀이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는 특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상하고 알수 없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런 나를 ‘쫄쫄.. 커서 뭐가 되려누.’ 하고 바라 보셨지만 지금 나에게 그 상상하는 힘이 남아있다면 현재 내가 가진 기술과 함께 한권의 책을 만들어내고 한국의 노래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문득 어린 시절의 내 상상력이 그림다. ^^

상상력은 배울 수 없고 다만 되찾을 수 있을 뿐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잠깐씩이라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호기심 많고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던 어린 시절의 놀이 정신으로 돌아가야겠다. 호기심에 한계가 없고 상상력에 구속이 없는 ‘영원한 소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성숙의 지혜를 가지고 어린 시절의 천진함으로 돌아가 나의 상상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2. 15. 이신애

— 잊고 살았습니다. ‘아리랑’ 그리고 조선인 혁명가들 —

대 학 한국사 시간에 리포트 텍스트였던 ‘아리랑’ 을 지금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슬쩍 훑어보고는 썰~로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았드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읽어 보니 참 마음이 아픡니다. 1900년대 초반의 한반도를 백년이 흘러 2000년대 초반을 살면서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랬습니다. 백년! 긴 시간이었을까요?

이제 그만 과거사에서 벗어나자는 여론이 일고, 친일파를 용서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목숨을 바쳐 우리의 현재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이름없는 조상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너희가 그 시대로 회귀해서 살아 보아라. 너희들은 친일하지 않고 살 수 있었겠느냐?

매우 그럴듯한 논리이지요. 하지만 그 논리는 매우 그럴듯할 뿐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구요, 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죽어갔지요! 살아서 부귀를 누리 고 목숨을 연명한 사람들이 명예마저 차지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이란 말입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름없이 죽어간 수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후손들의 현재의 삶을 보상해 준 연후에 과거를 잊고 용서하자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이땅에서, 중국에서 러



시아 및 그 주변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름없이 싸우다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을요!! 김산과 같은 무명씨들을요!

더불어 운동주 시인처럼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외국인 여기자에 의해 쓰여진 ‘아리랑!’ 우리에게 ‘부끄러움’ 이란 네 글자를 아프게 써보게 하네요.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0. 26. 조재숙

—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공지영) —

난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 책은 작가의 딸인 위녕이가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낼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써주었던 편지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서는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학생시절을 엄마인 작가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발하라는 응원의 메세지이기도 합니다.

입시에 대한 압박감 거기에서 오는 초조함과 불안함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덩그러니 놓여 있는 딸을 보면서 많이 안쓰럽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한발한발 내딛는 딸에게 작가인 어머니는 충고나 잔소리대신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 사랑을 어떻게 키워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자아를 가지고 당당히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직업에 대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생활속 이야기여서 그런지 조근조근 들려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함께 공유할수 있는 자신의 읽은 책들의 명문구를 인용하기도하고 맛있는 영화도 소개하면서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책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다행히 위녕이도 책을 무척이나 가까이 하고 있어 아름답고 맛있고 매력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감각이 열려있는 엄마와 많이 닮아 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딸임



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때 행복해 하는지도 읽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편지 마무리 하면서 수영장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오늘은 꼭 같것같지만 한번도 간것 같지 않습니다 엄마는 무척이나 운동엔 취미가 없는듯 합니다. 아니면 게으르든가 말이죠.

막바지에 다짐하고 갔더니 수영장이 없어진줄도 몰랐으니.....

중년에 접어들면서 운동은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지도 살짝 엿보이네요.

즐거운 우리집 책속에서 딸에 표현에 의하면 작가인 우리 엄마는 늘 바쁘기고 하지만 늘 허둥대고 정신없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철부지 엄마라고 그래서 어느부분에 서는 딸이 챙겨야 하는때도 있지만 그런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구요 늘 혼자있게 하고 외롭게 했지만 이 편지글로 많이 성숙했다고 내가 엄마 딸인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단 말도 잊지 않네요 그동안 내 곁에 없었던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때의 이야기가 나를 많이 바꾸었고 엄마가 분명 외로움을 주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는 성장의 자유도 얻었다고...

우리 종종 딸과 크든 작든 전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교양도 수양도 쌓아 좋은 모녀 사이로 친구관계로 발전시킵시다.

하이팅 딸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 꼭 읽어 보시길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05. 12. 이신애

— 바리데기를 읽고 —

차 감칠맛 나는 소설이다. 대가의 필체가 사뭇 흥미롭다. 친절한 복희씨의 자본
□ 자본한 필체와는 달리 간결하면서도 여러 공간을 아우르는 무속의 상상 속으로 빠져드는 재미가 쏠쏠하다. 재미? 사실 이 소설에서 재미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무겁게 깔려 있는 북한 동포들의 실상, 불법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타락,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소설은 다소 무겁다. 리얼리즘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무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이 매우 휴머니즘적이면서도 예전의 향석영이 아닌가보다 하는 약간의 실망(?)이 들기도 한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등등 모두 종교가 교리대로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무어며, 고통이 무어겠는가? 투쟁하라 선포하던 예전이 오히려 그림기까지 하는 요즘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로 세상은 시끄러운데 오히려 대중은 방관적이다. 투표율도 오십프로가 못 미치고 모이면 모두 이곳을 떠나려고만 한다.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고, 여행을 가고. 나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바리처럼 아픔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따뜻하게 변할 것인가? 한때는 그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찬 세상으로의 변혁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이다지도 회의적인지? 바리의 삶이 아프면서



도 그러기에 소설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프다.

이십일 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던져졌다.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빈곤하고 평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이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도 몰라 오늘 부처님 오신날 절에 가서 기원했다. 강하고 싶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연꽃처럼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런지요!!!!!! 매번 나약하고 무디게 사는 저부터 변혁하며 살려합니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05. 06. 표영남

새순

아기 숨결처럼 고요히 얼굴을 내미네.

보드랍고 연한 연두빛으로 하나, 둘
새색시같은 수줍은 얼굴을 내미네.

누가 볼세라 먼저 오신 님 뒤로
살포시 얼굴을 내미네.

파릇한 풀 향내 풍기며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속삭이며 얼굴을 내미네.

반가운 마음에 얼싸안고 싶지만
손 닿으면 달아날까 두려워
가만히 들여다 보고만 있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04. 20. 표영남

봄의 별

별은 밤에만 뜨는것이 아니다.
 낮에도 온 세상 구석 구석 노오란 별이 떠 있다.
 별이 하나 하나 피어 오를때마다
 우리의 희망도, 사랑도 피어 오른다..
 별이 하나 ,하나 지고 가면
 새 생명을 잉태하려는 초록빛 새싹이 움튼다.
 진 별은 땅속 깊은 곳에서 숨을 쉬며
 대지를 뜨겁게 물들인다.
 별이 피어나는 낮에는 미래를 엮는다.
 별이 피어나는 밤에는 꿈을 심는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속에는 향내나는 봄의 별이 뜬다.



회 · 원 · 글 · 모 · 음



2008. 12. 27. 전향란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고 낙서 몇 줄.. —

감 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신영복 선생님이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20개월을 복역하면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옥중서간집이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무기수였던 저자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부분 발췌된 글을 읽으며 꼭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싶어서 내가 추천한 책이었는데 쉽게 읽히지가 않았다. 한자가 많이 섞여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장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심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때문에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일과 관련된 불편한 감정이 더해져 내가 과연 이 책을 계속 읽어도 되는지 마음이 무거웠고 머리도 복잡했다. 그것은 독서를 하거나 교육을 받으며 지식의 양을 늘린다고 자위할 뿐 생활 속에서는 조금도 실천하지도 못하는 나에게 조용하고 매서운 회초리로 다가왔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책을 거의 다 읽은 날에 나는 많이 아팠다. 추운 곳에서 쏘그리고 앉아 새벽까지 책을 읽은 것은 그날까지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조금함도 있었지만 왠지 따뜻하고 편안한 상태로는 읽고 싶지 않은 나의 유치한 감성도 작용했다. 덕분에(?) 나는 그날 독서클럽에 참석조차 못했고 이후로도 열흘 정도를 감



기몸살로 심하게 아팠다.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다고 적었지만 그 아픔이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점점 낙서가 되어간다. 그래도 낙서 하나만 더..

책 속에서 책은 조금만 읽겠다는 글귀를 보고 나도 책을 조금만 읽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나는 신영복 선생님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읽긴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책속에서 많이 언급된 것처럼 책을 읽고 나면 사색하고 실천하는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실천→인식→재실천→재인식의 반복) 나는 정말 책을 아주 조금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관념적으로만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한 발 걸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다른 발은 더욱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훌륭한 책을 읽으며 나는 정리되지 않는 잡다한 낙서만을 남겼다. 정리를 할 수 없기도 하고 아직은 정리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 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보고 싶다.

은 평 구 립 도 서 관
주 부 독 서 클 럽 회 보 (제 5 호)

발행인 : 엄 무 성

편집인 : 이신애 · 서대성

발행처 : 은평구립도서관

발행일 : 2008년 12월

서울시 은평구 번영2길 30 (불광1동 산 59-32)

☎ (02) 385 - 1671 ~ 4
